

대~한민국 여자월드컵 첫 승·16강 도전



7일 캐나다서 개막...24개국 30일 열전
한국, 브라질·스페인·코스타리카와 E조
캐나다 vs 중국 A조 첫 경기...美·獨 우승후보



지소연



박은선

여자 축구 세계 최강을 가리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 월드컵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을 비롯한 24개 참가국들은 7일 오전 7시(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의 커먼웰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최국 캐나다와 중국의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3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여자 월드컵이다. 그간 12~16개국인 본선 출전국 수가 24개국으로 확대된 뒤 열리는 첫 대회여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승 후보로는 여자 축구 '최강' 미국과 세계랭킹 1위 독일이 꼽힌다.

미국은 세계랭킹에서는 독일에 밀려 2위에 올라있으나 역대 6차례 대회에서 모두 4강 이상의 성적을 냈을 정도로 월드컵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게다가 이웃 나라에서 대회가 열려 1999년 미국 대회 이후 16년만에 우승 트로피에 키스를 할 적이다.

개인 기량에 노련미까지 절정의 실력을 과시하는 공격수 애비 워바크(35·웨스턴뉴욕)가 미국의 핵심이다. 대표팀에서만 242경기에 출전해 182골을 넣은 그는 미국 역대 A매치 최다 득점 선수다.

자국에서 열린 2011년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일본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독일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독일은 유럽 예선 10경기 전승을 거뒀고 골 득실차 +58점을 기록했다. 무려 5명이 5골 이상씩을 넣었다. 앞서 있던 뒤져 있던 냉정하게 경

2015 여자월드컵 한국 경기일정

조별예선 E조 한국시간 기준 (FIFA 여자월드컵)

6월 10일(수) 오전 8시, 몬트리올	브라질 (7위)	대한민국 (18위)
6월 14일(일) 오전 8시, 몬트리올	대한민국 (18위)	코스타리카 (37위)
6월 18일(목) 오전 8시, 오타와	대한민국 (18위)	스페인 (14위)

자료: FIFA 연합뉴스

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따내고 특히 토너먼트에 강한 면모는 독일 남자 대표팀을 빼놓았다는 평가다.

이밖에 세계랭킹 3위 프랑스와 월드컵 통산

우승을 맞았다. 신구의 조화가 운덕여호의 최대 강점이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가 6개 조 체제로 치러져 3위를 기록해도 성적에 따라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도장들의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과 FIFA 주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잘 버무린다면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축구협, 응원구호 공모

대한축구협회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팀의 응원구호를 공모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팀 경기마다 응원구호를 공모하고, 마지막 득점자를 맞이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고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원 구호 이벤트 참가 희망자는 각 경기별로 응원구호를 만들어 대표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fa)과 인스타그램(instagram.com/thekfa)에 올리면 된다. 응모 마감시간은 경기별로 다르며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열리는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의 응원 구호는 7일까지 접수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TX 타고 KIA 야구 보면 할인

흙 토요일 경기 정기열차 운행...운임 30%·입장권 10% 혜택

KTX로 챔피언스필드 흥행 속도를 높인다.

KIA 타이거즈와 코레일 광주본부가 홈경기가 열리는 토요일마다 야구 관람 정기 KTX 열차(용산역~광주송정역)를 운영한다.

정기 열차 티켓은 'KTX 타고 KIA 야구 보러 가자'는 이름으로 6일부터 판매되며 KTX 승차권과 KIA 홈경기 입장권이 결합됐다. 코레일은 KTX 운임의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KIA는 입장권(K7석)을 10% 할인해준다.

'KTX 타고 KIA 야구 보러 가자' 정기열차는 #517(오후 1시5분 용산역 출발), #519(오후 1시20분 용산역 출발) #583(오후 2시5분 용산역 출발), #532(오후 10시53분 광주송정역 출발)편이다. 경기 입장권은 출석한 상품 예약 바우처를 챔피언스 필드 2안내소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야구 관람 정기 열차 상품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호남고속선 정차역 여행센터(문의: 코레일 광주송정역 여행센터 062-942-3376, 광주역 여행센터 062-525-4835)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경기 종료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편도와 왕복 티켓 여부는 고객에 선택할 수 있다. KTX 탑승 이전 등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전액 요금이 환불된다. KTX 탑승 후 경기가 취소되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에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사인볼도 제공된다.

KIA와 코레일은 이용객의 호응도에 따라 토요일 경기는 물론 주말 3연전에 맞춰 정기 열차 편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 열차와 별도로 코레일 열차 승차권 소지자(승차일 전후 7일까지 유효)는 입장권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IA는 정기 열차 운영과 함께 챔피언스필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야구팬들의 광주 방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흥행 호재가 더해지면서 KIA가 올 시즌 목표로 제시한 72만 관중 달성에도 정진호가 커졌다.

신속 경기장 효과와 끈끈해진 팀 컬러 등으로 KIA는 올 시즌 홈 26경기에서 31만5061명의 관중을 불러들였다.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1만2118명으로 무등 경기장을 기준으로 하면 매경기 만원 관중이 찾은 셈이다. 지난 시즌 64경기에 66만3430명(평균 1만366)이 방문한 것을 감안해도 눈에 띄는 증가세다.

하지만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흥행에 걸림돌이 있다. 정기 열차를 통해 수도권에서 광주까지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송정역에서 경기장까지 운행되는 버스 노선은 송정 98번 하나뿐이어서 50분가량 소요된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버스 환승을 하거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외부 야구팬들의 활발한 유입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원 넘고 3위 "GO~"

K리그 15R...광주 FC 7일 원정 상대전적 1무 4패 설욕 기회
수비 안영규·베테랑 이종민 노련함 승부수



3경기 연속 무승 뒤 2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광주 FC가 7일 수원전 첫 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10라운드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이종민(오른쪽)이 염기훈과 공을 다투고 있는 모습. <광주 FC 제공>

승리 본색을 깨운 광주 FC가 3위 자리를 넘는다.

광주 FC가 오는 7일 오후 6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기다려왔던 설욕전이자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다.

광주는 지난 3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1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 터진 여름과 김영민의 연속골로 2-1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엘로더비'의 무패 행진을 7경기에서 8경기로 늘렸다. 그리고 전남에게 올 시즌 홈 첫 패배를 안겨주면서 5위까지 경쟁 뛰어올랐다.

2연승으로 기세를 올린 광주는 수위 무승 부진의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수원과의 역대전적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단 한차례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

승적 이후 다시 만난 지난 10라운드 홈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하고도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0-2로 고개를 숙였다. 국가대표 출신들이 포진한 수원의 맞대결에서 조직력으로 분위기를 끌고 갔지만 수비 실수에 승패가 갈렸다. 광주 선수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광주(5승4무5패·승점 19)는 전남전 승리로 3위 제주(6승3무5패·승점 21)와의 승점차를 2점차로 좁혔다.

2위 수원(7승3무3패·승점 24)을 잡게 되면 제주를 밀어내고 3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수원과의 승점 격차도 2점으로 줄게 된다.

여전히 수원의 전력은 탄탄하다. 정대세, 염기훈, 배지훈, 정성룡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하고 최근 4경기에서도 3승1무를 기록하며 1위 전북을 추격하고 있다. 응원 열기로 뜨거워 수위 안방에서 치러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다.

부담감 많은 대결이지만 3경기 무승에서 벗어나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는 뜨겁다. 거침없는 미드필더 이찬동의 공백을 메울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찬동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피아대표팀에 승선해 태극마크를 달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 멀티 플레이어 안영규가 이찬동을 대신해 수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수비수 안영규는 탄탄한 체격조건과 정확한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드필더로 뛰어도 손색없을 정도의 기량을 갖췄다. 지난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베테랑 이종민과 조용태도 노련함으로 수원을 겨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